今曉頭厚昌에 賊禍
東興邑襲來市街戰
放火、掠奪警官隊應戰擊退
死傷者不少
住民側死傷

【新義州特電】十三日午前零時半頃 平北厚昌郡東興(平北厚昌郡東興邑) 읍내에게릴라불명한비적약八十명이래습하양습으로동흥경찰서원이 이에응전하길 약三시간반만에 이를 격퇴식히고 게속적추격중인데 이급보를접한후창서로부터 경찰관二十명 중강진서(中江鎭署)로부터 三十명 신가파서(新褓坡署)로부터二十명 후창수비대로부터十여명이응원출동하엿스며 더욱 평북경찰부로부터 기기(機騎) 경무과장이하三명이현장에 급행하엿다 피해상황은 자세히알수업스나 목히관명되것은 부내에 거주하면서도 가난한 外타에 글을배우지못하는 세 중민의아동은 수千명에달하야 경성부에서는 이들의교부구체책을 강구중이던바 쇼화十년도신규사업의하나로 五千원의 경비를계상하야 부내十八보통학교를 동원시켜 무산아동아학제를 단행하게되엿다 야학은 一학년생휴학후 하학급제로七十명을 모아 산술 국어 조선어 수신四과목을 교수하기로되엿다 이야학의년령은 十세이상으로월사금은 二十전이다 그리고동야학은 一년으로 졸업을시키는데 과목이전기와가티 저근사타에이기간에 지금수학보통학교의三학년정도의지식을 배양할 예정이다 七十명식을 수용한다면 十八교면 千二百六十명에달한다 이로써 부내의세궁민의 아동은 거의다 수용될터이다

日報支局) 에서 발화된사실은 석간에긔보한바 그이웃집 현영순(玄永淳) 방과 평양관우육점(平壤舘牛肉店) 과러접한 공가한채와 전후一동 四호를 전소하고 二시간半분경에진화하얏는데 원인은 조선일보지국에서 난로(暖爐) 에석탄을 너어두고 외출한 사이에 연통이더러서 그덧헤된것이며 손해는방금조사중인데 가옥은유군성(劉君星) 써의소有로 대판해상화재회사(大阪海上火災會社) 에 가입하얏다 조선일보인천지국에서는 임시사무소를 부내통정정(龍岡町) 二七번지의三호 공화상회(共和商會)에서 사무를보리라한다

府內十八公普校에
無產兒啓蒙夜學
十년도신규사업의한가지로
五千圓豫算을計上

민의 가여운아동은 이로써 얼마간구제되리라고한다

仁川火災續報
【仁川電話】 귀보一十二일 一시四十분경 인천부토목회사(仁川府廣里) 조선일보지국(朝鮮日報支局) 에서 발화된사실은 석간에긔보한바 그이웃집 현영순(玄永淳) 방과 평양관우육점(平壤舘牛肉店) 과러접한 공가한채와 전후一동 四호를 전소하고 二시간半분경에진화하얏는데 원인은 조선일보지국에서 난로(暖爐) 에석탄을 너어두고 외출한 사이에 연통이더러서 그덧헤된것이며 손해는방금조사중인데 가옥은유군성(劉君星) 써의소有로 대판해상화재회사(大阪海上火災會社) 에 가입하얏다 조선일보인천지국에서는 임시사무소를 부내통정정(龍岡町) 二七번지의三호 공화상회(共和商會)에서 사무를보리라한다

開豊에 染病
醫療班이現地急行
염병환자가九명이발생해
을방지하고자위생과(衛生課) 에서 의사九명을 파견하야 十二일현장으로 급행하엿다

池錫勇의判決
懲役十三年
江西沙川事件犯人

【平壤】 루보=대정八년소요당시 수다군중을지휘하여가지고 평남강서군사천헌병분견소(江西郡沙川憲兵分遣所) 를 습격하엿든 대동군 금제면원장시(大同郡金堤面院場市) 출생지석용(池錫勇)(三一) 에대한 대정八년제령 제七호위반 지안유지법위반및 살인미수(殺人未遂) 피고사건에대한 판결은十二일오후十二시三十분 평양지방법원 복포(縞浦) 재판장으로부터징역十三년 미결구류일수三百六十일을 언도하엿다

慶北線鐵道에 大疑獄
三年間十數萬巨額
車掌驛員移動式聯絡犯罪
安東署峻烈한取調

【大邱電話】 경북안동경찰서(慶北安東警察署) 에서는 일찌전부터 국비밀리에 조선철도경북선(朝鮮鐵道慶北線) 령차의 차장(車掌) 과 각정거장출찰(出札) 개찰(改札) 게원을 소환취조하는중이엇는데 지난十일에이르러서는 확호한엇던증거를잡엇슴인지 경북선일대각역에중하야 차장과 역원二十二명을인치하고 준절한심문을개시하엿스나 그내용은극비에부치 자세한바를모르겟스되 즉력함문한바에의하면 이들은과거三년十여차례로공모멱략을취하야 한번사용한 승차권(乘車券) 을 다시 사용한외에 역에서차표를팔지안코 승차시키어 역에서역으로이동연락(移動聯絡) 을취한후 승객에게 차표잡을바더줘 이중간에 엄청난사리가 잇슴을 알고 경성부서에 통보(通報) 하야 오렌지일을 조사하는바 그횡령액수가 광十七萬七千二十원의 거액에달하엿다하며 방금경성중취조와함께 검거도더욱 확대될모양으로 군내에드를게보는 대의옥사건인 듯십다

醜惡한罪狀
뒤이어드러나는중
主犯은安東驛手

【大邱電話】 조선철도게 전대미문의의옥사태를전개한 조선철도경북선(朝鮮鐵道慶北線) 승차권및메사건은 안동서(安東署) 에서 맹렬한 활동을개시하야 관개자十八명을 검거하고 철야취조중인데 十三일 이들은과거三년十여차례를 참서(慶北安東警察署) 에서는 국비밀리에 조선철도경북선(朝鮮鐵道慶北線) 령차의 차장(車掌) 과 각정거장출찰(出札) 개찰(改札) 게원을 소환취조하는중이엇는데 지난十일에이르러서는 확호한엇던증거를잡엇슴인지 경북선일대각역에중하야 차장과 역원二十二명을인치하고 준절한심문을개시하엿스나 그내용은극비에부치 자세한바를모르겟스되 즉력함문한바에의하면 이들은과거三년十여차례로공모멱략을취하야 한번사용한 승차권(乘車券) 을 다시 사용한외에 역에서차표를팔지안코 승차시키어 역에서역으로이동연락(移動聯絡) 을취한후 승객에게 차표잡을바더줘 이중간에 엄청난사리가 잇슴을 알고 경성부서에 통보(通報) 하야 오렌지일을 조사하는바 그횡령액수가 광十七萬七千二十원의 거액에달하엿다하며 방금경성중취조와함께 검거도더욱 확대될모양으로 군내에드를게보는 대의옥사건인 듯십다

昨夜昌信洞에 劫火
一族八口가死傷
三명은무참히타죽고마럿다
原因은火爐불引火

十二일오후十一시十분경 창신동(昌信洞) 산六二九의二七림종식(林鍾植)(三) 의 토막에서 삽시간에토막을전소하고 三명소사(燒死) 四명중상을입은 참변이돌발되여 소관동서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야 진화에 전력을다하엿스나 토막이 목조초가집임으로 맹렬한 화세는 더욱 더하야 동소 화구조에 노력하엿스나하는수업시 전부타버리고 겨우 그안에 잇든 임종식의 부친 임창선(林昌善)(七四) 과 그의 장남 임병조(林炳祚)(三一) 의 처 김씨(金氏)(二九) 와 그의 장녀 임순이(林順伊)(七) 의 四명은 그자리에서 참혹히 타죽고 그의 차남 임병선(林炳善)(二七) 과 그의 삼남 임병화(林炳華)(五) 는 중상을입어 동대문서에서는 약一주일전부터 혁사대를각지로파견코 엄중수사를게속하던중 작十二일에 엇더한 단서를잡고 박용덕(朴容德) 외二十재(李有宰) 양형사를 양추구미근면일패터(楊州郡美沂面一貝里) 에 급거출장식히여 동리모처에잠복중인 대사기단 추범최영선(崔榮善) 외四명을 一망타진하야 동서로압박루치 밤을새워가며 국비밀리에 엄중취조를게속하고잇는데 이자들은 토지매수업을간판으로 전기오일통씨로부터 토지매수업을간판으로 전기오일통씨로부터 토지매수업을간판으로 중대한문제로서대문서에서중취조하야 서장은 남은고아十六명의 전도에대하야 공제자양원에서 양식으로서먹게하엿스나 十三일경성부로부터 남은고아十六명의 무엇을엇더케먹일것인지! 명령한사실이라하는바 그횡령액수가 광十七萬七千二十원의 거액에달하엿다하며 방금경성중취조와함께 검거도더욱 확대될모양으로 군내에드를게보는 대의옥사건인 듯십다

慈養院에 糧米絶乏
收容兒糊口無策
一萬九千여원만흔돈어듸로
발서부터이런걱정

공제자양원을 창설하후 三개년동안에 장부상으로 나타난 금액이 一萬九千여원에달하나 그는 한푼의긔본금이업는터이다 지금남어잇는고아(孤兒) 十六명이 어제까지간신히 남은 양식으로서먹엇스나 十三일경성부로부터 무엇을엇더케먹일것인지! 명령한사실이라하는바 그횡령액수가 광十七萬七千二十원의 거액에달하엿다하며 방금경성중취조와함께 검거도더욱 확대될모양으로 군내에드를게보는 대의옥사건인 듯십다

富豪印章을僞造하야
拾數萬圓土地賣喫
토지거간의간판을부치고
東門署가探知檢擧

京電의無情
부내창신동(昌信洞) 五八一번지 김윤업(金潤業)(三) 집 고용녀년十월하순경 광화문우편국압 배통례(裵通禮)(三) 는작 十二일오후二시경 부내원동(苑洞) 九十八번지 노수분(盧壽盆) 의집개(犬) 와 부내재동(齋洞) 五十四번지 김재수(金在洙) 의개는 행위로명이되엿는데 그주인들은 十三일각々종로서에 게출하엿다

失犬

◇ 엽서(葉書) 를 엽해선 거짓야 소교신도가 대외주점에 무전취식하고 경찰서유치장 신세진이가 一二일오후十一시경 부내종로二정목六十三번지 신정희(申貞熙) 음식점에서 四十가량원의 향응을 하고 돈을 안내하겟다고 하야 그들의 암호의 직명(職名) 과 주소를 물어보고 그들은 동서로 가버리엇다 그러나 그들의 암호의 직명은 한성모 교를 들어 그들의 주소가 업는 것을 알고 그 여관주인을 불러 조사하야 보니 그들은 전부 사기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관주인은 그들을 고양복쟁이! 하며 소리를 치자 그중두명은 도망하고 한명은 종로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취조하야 본즉 그들은 경성부내 각처로 돌아다니며 부자집에 부하나 三명을 거나리고 침입하야 백미 五두를절취하야 가지고 나오는것을 마침 순사의 본정서최형사(崔刑事) 가발견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전긔단장김용안이가도 하야 취조하는것을 방해하야 도망한 두명은 체포치못하얏는데 이들은작년十二월부터 절도단을조직하고 제一회로 대전(大田) 에 가서 절도단장을 마음대로